

‘인간다움’ 담아낸 국내외 어린이 공연 만나볼까

ACC재단 ‘아시테지 여름축제’ 우수작 초청 무대

19-20일 ‘코 잃은 코끼리 코바’

내달 2-3일 ‘내가 처음 만난 우주’

환경과 기술, 사람을 소재로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국내외 우수 공연 2편이 광주 지역 관객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ACC 어린이극장에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국내외 우수 공연 2편을 선보인다.

국내 대표 어린이청소년 예술공연 축제인 ‘2025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다가오는 휴머니즘’을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

아시테지는 지역 거점 극장과의 협력 사업으로 오는 19-20일 국내 공연 ‘코 잃은 코끼리 코바’, 8월2-3일 해외 공연 ‘내가 처음 만난 우주(Universe)’를 ACC 어린이극장 무대에 올린다.

‘코 잃은 코끼리 코바’는 사자에게 코를 잃은 아기 코끼리 코바가 겉모습이 다르다는 편견을 이겨내고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이야기다. 자신의 정체성과 용기를 찾아가는 여정에 옷장 속의 옷가지와 신발, 옷걸이 등 일상의 소품들이 초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국내외 우수 공연 2편을 선보인다.사진은 왼쪽부터 ‘내가 처음 만난 우주’, ‘코 잃은 코끼리 코바’ 공연 모습.

의 동물로 재탄생하며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작품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작은 방이 전부였던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커다란 상상을 품고 편견 없는 미래를 그려내 가자는 극단의 긍정적 바람을 담았다.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 기꾼이 만나 놀이가 연극이 되는 순간이 펼쳐진다.

스페인 극단의 ‘내가 처음 만난 우주’는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와 보호자를 위한 해외 초청 영아 공연이다. 빛이 퍼지고 소리가 울리는 무대는 광활한 우주가 되고 사람과 몸, 사물은 우주 속 작은 존재가 돼 연결과 균형,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는 감각적 물입형 공연이다. 온 우주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인다. 이번 공연은 익숙함이 무너

지고 새로움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코 잃은 코끼리 코바’는 3세 이상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0일 오후 2시 등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천원이다.

‘내가 처음 만난 우주’는 8월2일과 3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공연한다. 관람료는 2만원으로 0-24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관람권은 재단 누리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이 운영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최명진 기자

예술 역량강화 워크숍 ‘정지비행’

21일까지 서포터즈 ‘별새’ 모집

광주·전남·전북 지역 예술인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정지비행’이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서포터즈 ‘별새’를 모집한다.

‘정지비행’은 SPACE DDF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1995Hz·쌈·어랏이 함께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예비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PEER-UP: 예비예술인을 위한 튜토리얼’의 일환으로, 모집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3회차를 맞은 ‘정지비행’은 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9월13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정아사란(시각예술가)의 ‘포드폴리오 실전 가이드’ ▲송운지(미술사·비평)의 ‘아티스트를 위한 쉽고 빠른 글쓰기’ ▲문지영(시각예술가)의 ‘작업과 전시를 잇는 말과 글’ 등 이론과 실기를 아우른 강연으로 꾸려진다. 선발된 ‘별새’는 정지비행 전 과정에 참여하며 포트폴리오, 아트스테이트먼트, 기획안 작성 등에 대한 실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는 지역 작가와 기획자와 함께하는 스튜디오 탐방도 예정돼 있다.

지원은 구글폼(<https://forms.gle/skJWxd3nN3SqP9NN9>)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peer.up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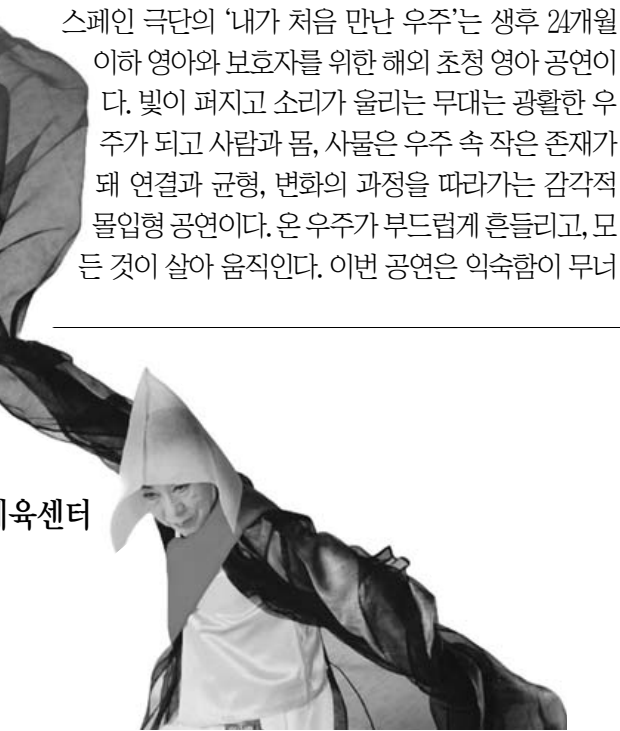
목포서 되살아나는 춤의 유산

우봉 이매방 10주기 추모공연…20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통춤의 거장 우봉 이매방 선생의 예술혼이 고향 목포에서 다시 깨어난다.

이매방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헌정 무대가 오는 20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이매방이라는 예인의 뿌리를 되새기고 그가 태어나 예술을 시작한 터전에서 전통예술의 불씨를 미래로 잇는 데 중점을 둔다. 2017년 2주기 공연 이후 8년 만에 마련되는 공식 추모 무대다.



우봉 이매방 선생은 승무와 살풀이춤의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이자 한국 전통춤을 예술성과 창조성으로 승화시켜 세계적 반열에 올린 인물이다. ‘목포가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 ‘하늘이 내린 춤꾼’이라는 찬사를 받은 그는 한국

무용계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84년 육관문화훈장, 1998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비롯해 2002년 한국무용협회 무용대상, 2011년 국회대상 공로상, 2015년 은관문화훈장 등 굵직한 상훈을 받으며 한국 무용사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은 이매방 선생의 부인이자 50여 년간 이매방류 춤을 지켜온 소정 김명자(김정수) 선생과 이혁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가 공동 기획·제작했다.

공연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승무·살풀이 이수자 및 전수자 50여 명과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이 대거 참여해 선생이 창작·계승한 대표작을 선보인다.

승무·살풀이춤·입춤·검무·삼고무·오고무 등 춤으로 이룬 그의 예술 세계를 오롯이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곤, 원형 이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득주, 이서남득봉 동북상봉, 안정길”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21강〉2. 곤위지(坤爲地) 上

육십사괘의 두 번째 괘인 곤위지는 모두 음으로 돼 있다. 건위전은 순양(純陽)의 부괘(父卦)인데 반해 곤괘는 순음(純陰)의 모괘(母卦)다. 건은 ‘자물쇠’ 건이고 곤은 ‘열쇠’ 곤이다. 곤은 밖으로 드러나는 상이 아니고 음이 숨어서 해야 하며 뒤따라가서 조용하고 유순하며 부드럽게 행동하는 순(順)의 도이다.

만물의 기(氣)는 하늘에서 시작하고 그 형태는 땅에서 생긴다. 하늘은 베푸는 것이 근본이고 땅은 받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 그래서 중건전은 음의 변화지상이고 하늘 태양의 베풀음 통해 만물자생(萬物資始)의 상인데 반해, 곤은 낮은 사람, 집에서 안에서 쓰는 사람이며, 여음(女陰)이고 지구에 해당해 땅을 통해 만물을 생하고 싣고 품는 만물생재(萬物生載)이고 품물자생(品物養生)의 상이다.

곤위지(坤爲地)	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後得主, 利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卦 象
	龍戰于野 其血玄黃 黃裳 元吉 括囊 无咎无譽 含章可貞, 或從王事 无成有終 直方大 不習无不利 履霜, 愷至	萬物生載之課 品物養生之象 君親臣和之象 含弘有斐之意

곤위지괘(坤卦)의 단사에는 ‘곤, 원형 이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득주, 이서남득봉 동북상봉, 안정길’(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後得主 利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이다. 즉 ‘곤은 땅, 음으로 크게 행동하다. 앞말이 곧고 바르며 이롭고 군자가 나아가는 바가 있다. 앞서면 흠미하고 뒤따르면 주인을 얻는다. 서남에서 벼를 얻어 이롭고 동북에서는 벼를 잃는다. 편하게 정도를 지키는 것이 길하다’는 뜻이다.

용은 하늘의 상징이고 말은 대지의 상징이다. 빈마(牝馬), 즉 암말은 유연하고 순하며 새끼를 낳는다.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면(貞) 이롭고 편안한다. 상전에서는

‘땅을 따르는 것이 곤이니 군자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가득 싣는 것’이라고 해 ‘지세곤, 군자유유왕 선미후득주’(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이라 말한다.

곤은 음으로 유순하고 신하의 도리이니 잘 따름으로써 행동하다. 곤괘일 경우에는 대장부나 사회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처(妻)나 신하처럼 잘 따라야 길하다. ‘이빈마지정’(利牝馬之貞) 즉, 유순한 암말처럼 오랫동안 곧고 바르게 따르면 길하다. 곤괘는 여자의 폐이고 신하의 폐이니 먼저 나아가지 말고 잘 따르면 좋다는 의미다.

곤괘는 서남의 음(陰)의 방향(未坤申)이고 건괘는 동북의 양(陽)의 방향(成乾亥)이다. 서남방으로 가면 같은 벼들(巽, 離, 坤, 兌)을 만나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롭다. 동북방으로 향하면 양의 자리이니 친구를 잃어 좋지 않지마, 양(乾, 坎, 震, 艮)은 남편이므로 남편을 얻어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바르고 안정을 얻어 길하다(安貞吉).

서죽을 들어 곤괘를 득괘하면 서남쪽은 좋고 동북쪽은 어렵다. 여자끼리 일하는 것은 좋고, 강건 씩씩하게 적극 나아가는 것보다는 유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길하다.

곤위지	곤지서(二動)	곤지비(五動)
품물자생	지수사	수지비

남자가 곤괘를 득괘하면 이효(直房大不習无不利)의 시기에만 좋다.

이효가 변하면 지수사(地水師)로 ‘많은 무리를 이끄는 상’이고 오효가 변하면 수지비(水地比)로 ‘친하다’는 의미이다. 남편감을 찾을 때 곤괘를 얻으면 강성한 남자이고, 곤괘를 얻으면 여자처럼 차분하고 유순한 사람이다.

단전(象傳)에서 말하길 ‘지재곤원 만물자생’(至哉坤元 萬物資生)이라 한다. 즉, ‘곤은 크고 후덕해 만물이 생성된다’는 뜻이다. 건괘와 같이 만물생성의 원(元)이라고 하고 있다. 원이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요 봄이다. 건에서의 원은 하늘이 베풀었다는 것이고 곤에서의 원은 하늘(乾)의 기(氣)를 받아 만물을 생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곤은 만물자생(資生)이요 건은 만물자시(萬物資始)’라

했다.

건은 기(氣)로서 만물에 생기를 주고 곤은 기가 나타나 형체다.

계사전(繫辭傳)에서는 ‘건은 대시(大始)이고 곤은 성물(成物)’이라고 한다. 즉 건부(乾父)가 빛과 기를 내려주면 곤모(坤母)는 이를 받아 자양하고 배양해 만물을 생성한다.

모 화장품 회사의 이름인 ‘시세이도’(資生堂)는 곤괘의 단상전에 있는 ‘만물자생’(萬物資生)에서 따왔다. 지금은 화장품이 남자에게도 필요하나 주로 여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으로 여자를 상대로 하는 회사이니 상호명이 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곤괘의 상을 만물생재지과(萬物生載之課)요, 품물자생지상(品物資生之象)이며, 인군이 노래하면 신하가 따라 부르는 군정신화지상(君唱臣和之象)이고 땅은 모든 만물을 품어서 빛을 발하니 함홍유비지의(含弘有斐之意)라고 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곤괘를 득괘(※각주=상왕(象), 땅을 따르는 것이 곤이니 군자가 땅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가득 싣는 것이다)地勢坤 君子以 厚德載物). 곤괘는 시월에 있다(節氣在 十月). 시월생이거나 남갑이 乙未 乙巳 乙卯 癸亥 癸酉 인봉명은 필히 명예가 높고 덕망이 두터운 대신이 된다(如生於十月及納甲本命者 必爲名高德厚之大臣/여생어십월 급납갑본명자 필위명고덕후지대신). 차용(借用)은 癸未, 癸巳, 癸卯, 乙丑, 乙亥, 乙酉이다. 만약 급시가 못되게 출생했거나 卦효가 그 위를 잃은 자라더라도 또한 주로 전산과 후록과 장수를 보유했다(如生不及時 卦爻失位者 亦主有田產厚祿長壽/여생불급시 卦효실위자 역주유전산후록장수). 승려나 도인인 자는 또한 후복을 누리고 여명인 즉 유순한 덕이 있어 지아비를 영화롭게 하며, 자식이 귀하게 됨을 본다(爲僧道者 亦享厚福, 女命則有柔順之德而見夫榮子貴/위승도자 역향후복, 여명 즉유유순지덕 이견부영자귀)하면, 음(陰)의 성격인 물질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집단, 조직, 회사 등으로서 물질적 가치, 물신헌금만능주의(物神黃金萬能主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양육하는 일에 길하고 검소하며 부단한 노력으로 커다란 성과나 결실을 맺는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그늘이 되어서 착실하게 분골쇄신 노력하고 있으면 마침내 행운은 오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거나 적극적 추진 등은 안된다. 남의 눈 에 띄려 하거나 남보다 앞장서려 하면 흉으로 전락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 뒤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결실과 보람을 가져오며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

여성에게는 길괘요, 남성의 경우는 역지로 마누라 역할을 연출함이 발복개운(發福開運)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고생이 먼 훗날의 길이 될 것이므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노력해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연장자의 가르침을 받고 명을 받아 일하는 것이 좋다.

거래, 사업, 혼담 등에서 적극적 추진은 안되고, 분실물(分失物)은 나오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待人)은 오지 않으나 이(離), 곤(坤), 태(兌)의 서남 방향에서 함장(含章)의 문서로서 소식이 있을 수 있다(利西南得朋). 여행, 행상은 서남쪽은 동행자가 있는 것이 좋고, 동북쪽은 혼자 가는 것이 좋다.

병점으로는 곤은 비위(脾胃)로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고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전염병이며 순음 허공(純陰虛空)으로부터 원기허손(元氣虛損), 신경쇠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육충래로서 폐자(伏差)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출산에서는 곤괘는 어미이니 순산(順產)이나 순음 허체(虛體)인 점을 감안해 산후 회복에 주의해야 한다.

괘의 왕래를 소장생괘법(消長生卦法)으로 살펴보면 건위전에서 음이 치고 올라와 산지박(山地剝)괘에서 소장의 순(順)으로 왔다고 할 수 있고 역(逆)으로 지뢰복(地雷復)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변괘(不變卦)를 만났을 때 연도(研討) 궁리하는 방법이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명리사주학,역경(매주토,일오전)
- 기초이론부터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양성

